

잡아함 23 라후라소문경

날짜: 11월 13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74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죽원(迦蘭陀竹園)에 계셨다.

그때 존자 라후라는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.

“세존이시여,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[我]와 내 것[我所]이란 소견, 잘난 체하는 거만[我慢]과 같은 번뇌의 엉망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? ”

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여래에게 ‘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저의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란 소견, 잘난 체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엉망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’라고 물었느냐 ? ”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“훌륭하구나,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.
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

라후라야, ‘존재하는 모든 색(色)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, 거칠건 미세하건, 아름답건 추하건, 멀리 있는

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, 그 일체는 모두 나[我]가 아니고,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,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’라고 이와같이 평등한 지혜로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.

수(受) · 상(想) · 행(行)도 마찬가지며, ‘식(識)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안에 있는 것 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, 거칠건 미세하건, 아름답건 추하건,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,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고,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,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’라고, 이와 같이 평등한 지혜로 사실 그대로 관찰 하라.

이와 같이 라후라야, 비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.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라 소견, 잘난 체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얹맺이 없어지느니라.

라후라야, 이와 같이 비구가 만일 의식이 있는 이 몸과 바깥 경계의 모든 대상에서 나와 내 것이라 소견, 잘난 체하는 거만과 같은 번뇌의 얹맺이 없다면, 그 비구는 ‘애욕을 끊고, 모든 결박[結]을 제거하고, 바르게 빈틈없는 한결같음[無間等]으로 고통의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’고 할 수 있느니라.”

이때 라후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.